

‘목포는 맛이다’...미식페스타 열린다

23~24일 ‘갤러리 해관1897’ 서재즈·푸드·음식인문학콘서트 등 음식+인문학 오감 즐거운 행사



대한민국 대표 ‘맛의 도시’ 목포시가 음식을 주제로 한 축제인 ‘목포미식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인 이 행사는 지난 6월 개관한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오는 23~24일 열린다. 단순히 먹고 즐기는 획일화된 음식 축제가 아니라 인문학적 요소를 추가해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됐다고 시는 밝혔다. 개막 행사에서는 영화 속 음식을 음악으로 재연

한 재즈공연, 식재료를 이용한 ‘컬러러리 아트 퍼포먼스’, 스타셰프의 ‘푸드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목포 청년셰프와 명인들의 ‘목포의 맛 토크쇼’, 전쟁과 음식에 관한 ‘음식인문학콘서트’, 9미(味) 식재료와 와인의 조화를 경험하는 ‘목포! 와인을 만나다’ 등이 이어진다. 전통주의 매력을 알아보는 ‘전통주토크쇼’, 남도음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다큐멘터리 상영 등 다채로운 음식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미식페스타는 목포의 대표 축제 중 하나로 문화제 야행, 건맥축제와 같은 기간에 열려 윈도심의 가을은 더욱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가득할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목포시, 내년 10월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준비 박차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순조 축구센터·실내수영장 등 개보수 기획·운영·시설팀 추진단 운영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현장.

목포시가 2023년 10월 열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양대 체전을 20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체류형 국제해양관광도시, 스포츠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자세로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추진체계 구축 ▲체전시설 확충 ▲시민참여 확대 ▲손님맞이 준비 등을 골자로 하는 체전준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체전과 관련된 최대 관심사인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인근에 들어설 목포종합경기장은 육상 경기와 함께 개·폐회식이 진행될 메인 스타디움이다. 총공사비 920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2만6468㎡ 규모로 건립된다. 시는 올해 안으로 대부분의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엔 운동장 조성 및 마감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축구센터, 실내체육관, 실내수영

장, 카누경기장, 부주산 체육공원 클라이밍센터 및 테니스장 등도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행정적 지원을 전담할 전국체전추진단을 신설·운영 중이다. 전국체전추진단은 체전기획팀, 체전운영팀, 체

전시설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시민들과 함께 준비해 양대 체전을 스포츠관광도시로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현대삼호중-폴리텍대학, 기술인력 양성 협약

채용·기자재 지원 등 협력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김형관)이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와 조선인력 양성에 손을 맞잡고 산학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협약을 통해 ▲기술인력 육성과 채용 협력 ▲인여 교육 기자재 지원 ▲재능기부 공동 봉사활동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학위과정과 신중년과정, 전

문기술과정 등에서 연간 약 400명가량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 최근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체에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지역 조선업체가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한 만큼, 지역 대학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인력을 원활히 수혈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팔딱팔딱’ 신안 왕새우 드시러 오세요

23일부터 11일간 퍼플섬서 축제 할인 판매에 다양한 요리 선보여



신안군이 UNWTO(유네스코관광기구)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과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퍼플섬에서 오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11일간 섬 왕새우(사진)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개최되는 첫 수산물 축제로 왕새우 소비촉진 활성화와 함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청정 갯벌에서 지란 신안 왕새우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왕새우는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 예방, 피부노화 방지 등의 효능과 함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키토산이 함유된 고단백 저칼로리 건강식품이다. 특히 신안 왕새우는 게르마늄과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맛과 영양 면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정평이 나 있다. 군은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왕새우 할인 판매와 동시에 즉석에서 다양한 왕새우 요리(구이, 튀김 등)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이외에도 신안에서 직접 생산한 제철 맞은 농·수특산물도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신안군은 양식새우의 주산지인 284여가, 363개소(938ha)에서 최근 2년 연속 생산고 600억

원을 달성했다. 전국 양식새우 생산량의 52%(전남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축제는 버들마편초꽃 축제(오는 30일까지)가 열리고 있는 보라색이 만연한 퍼플섬에서 개최되는 만큼, 제철 맞은 왕새우와 꽃 축제가 어우러져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고 먹고 즐기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며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군, 적극행정 우수 사례 3년 연속 수상

섬 외 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 개선

완도군이 전남도 주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섬 제외 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제도 개선 이끈다’로 기관 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섬 제외 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제도 개선 이끈다는 제목의 ‘섬 발전 촉진법’에 의거 도서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 시 주민들이 부담하게 택배비 할증료를 부담하고 있어 주민 면담, 조사 후 중앙부처에 건의해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반영됐다. 완도군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섬 지역 택배비 할증료를 부담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상으로 완도군은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2020년 하반기 경진대회에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 해상 확대’ 사례가 우수상을, 지난해 하반기 경진대회에선 ‘LPG 배관망 사업 연계, 취약계층 보일러 무상 교체’ 사례가 장려상을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회 연속 수상하면서 완도군의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며 “우수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공유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더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챌린지’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개최

진도군이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해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챌린지’를 한다. 진도군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치매 친화 사회’라는 주제로 14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고

자 기획됐다. 챌린지 행사는 2주 동안 12만보(1일 최대 1만보)를 달성해 쿠폰을 받은 선착순 100명에게 진도 아리랑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12만보를 달성한 참여자에게 상품권 5000원, 행사 종료 후 참여 후기 작성 참여자는 상품권 5000원을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